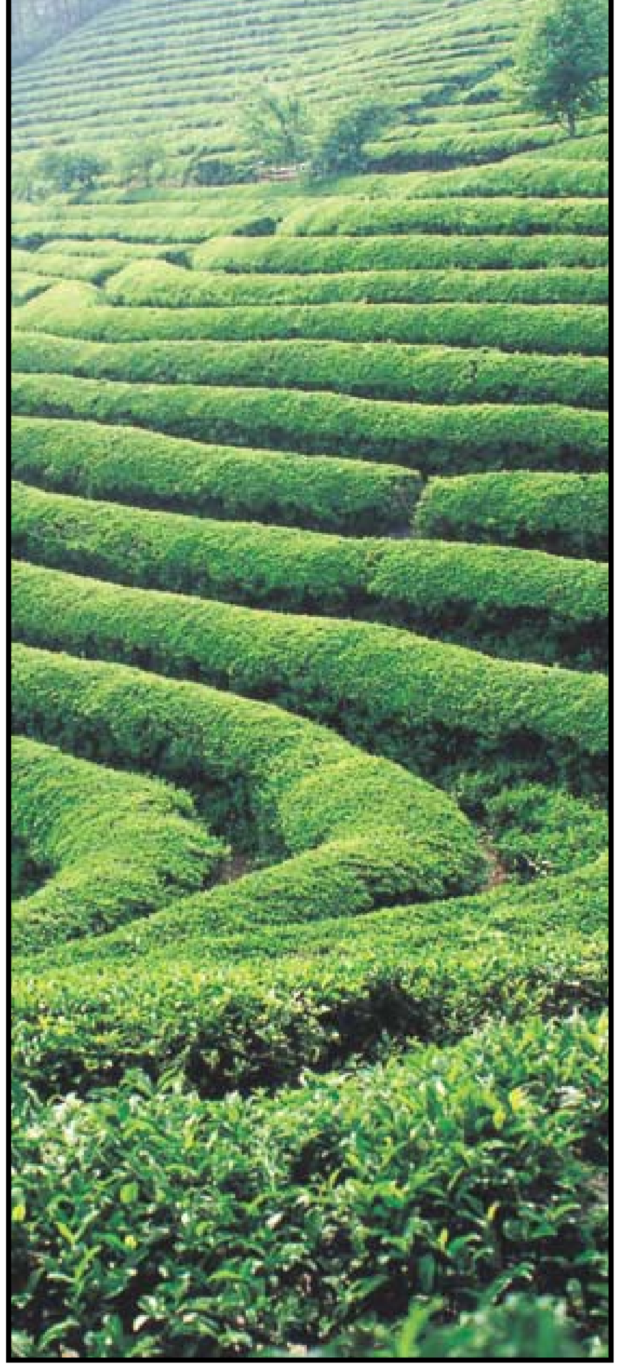
차의 양대 산맥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차의 양대 산지로 손꼽히는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 '야생차'와 '기계차'로 대표되는 하동과 보성의 차는 우리나라 차시장의 70~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호음료로서 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광자원으로서 차의 가치를 인식한 하동군과 보성군은 각각 '야생차 특구'와 '녹차특구'를 추진하고 각종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하동과 보성의 차 재배 전통과 현황을 알아본다.



야생차로 승부한다

경남 하동

우리나라 차 시배지(始培地)인 경남 하동. <삼국사기>에 따르면 약 1,100여 년 전인 신라 흥덕왕 3년(828년)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녹차씨를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 자락 쌍계사 입구에 처음으로 심었다고 전한다.

하동은 오늘날에도 전국규모 1, 2위를 다투는 차 재배지다. 1천 2백여 농가가 474ha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하동지역에서 등록 허가된 50여 개의 차 생산업체에서 연간 260여 t의 차가 생산되고 있다. 이 중 고급 잎녹차가 전체의 60% 수준인 160여 t이다. 하동녹차 역시 지난해 5월 농림부 지정 '지리적표시' 제2호 특산품으로 등록됐다. '하동녹차'는 하동차영농조합법인이 생산, 가공한 녹차 중 15%이내의 상품에 한해 표시된다.

하동 야생차가 예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은 그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지리산 일대의 연 평균 기온은 섭씨 13.8도, 강수량은 1,538㎜. 차나무 성장에 있어 최적의 조건이다.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원활한 것도 유리한 조

허가된 50여 업체 연 260톤 생산
지리산 지역에서 재배, 맛·향 탁월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광객에 인기

건이다. 이 지역 녹차밭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가꾸기 어려운 산악지역에 분포해 있어 재배조건이 까다롭고 기계작업이 힘들어 손으로 따고 덖는 수작업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맛은 최고로 치지만, 가격 경쟁력은 보성녹차에 비에 약하다. 최고급 상품은 100g당 최고 55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상품(上品)은 보통 6~8만원 선이다.

부춘다원(055-883-0516)과 청석골다원(055-883-1847), 곡천다원(055-883-5160) 등에서는 찻잎을 일일이 손으로 따서 솥에 덖어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동군이 개최하고 있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매년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본과 중국 등의 차 관계자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부춘다원 여봉호(42) 대표는 "기계로 잎을 대량 채취해 증기에 쪄서 말린 것과 찻잎 하나하나를 따내 솥에서 손으로 비비며 덖어낸 수제차 맛은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배지가 평지로 점차 내려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생차가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오다 보면 기존의 재배차와 차별성이 없어지고 고유의 맛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화로 생산한다

전남 보성

한 비구니 스님이 녹차밭 사이를 걷고 있다. 어디선가 자전거를 탄 수녀가 나타나 비구니 스님을 태우고 차밭 사이를 달린다.

몇 해 전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이 광고의 촬영지는 전남 보성군. 이곳에 펼쳐진 백만여 평의 대단위 차밭이 광고와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보성군은 차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됐다. 녹차밭이 차 관광농원으로 인기를 끌자 보성군은 2007년까지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비를 포함해 290억원을 들여 7만5000평의 부지에 차와 소리에 관한 문화적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지로 먼저 세인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보성은 우리나라 최대의 녹차 산지다. 현재 220여 농가가 518ha의 밭에 녹차를 재배해 연간 약 960여 t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 차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양이다. 보성녹차

광고, 영화 등 촬영지로 유명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 점유
싸고 품질좋은 상품 대량 보급

는 2002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의 품질을 농림부에서 보증하고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되어 그 명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아열대 식물인 차나무는 날씨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1500㎜ 이상 되는 곳에서 잘 자란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보성 지역은 강수량은 부족하지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에 따뜻한 해풍이 불고 기후 변화가 뚜렷해 차나무 생장에 좋다. 이 같은 자연조건을 살려 보성군은 1963년 차밭 일대를 관광농원으로 지정하고 차 산지 일번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보성녹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 농업기술원 차 시험장을 건립해 국내 최초의 고유품종인 '보향(寶香)'과 '명선(茗仙)', '참녹' 등 3개 품종의 개발에 성공해 관심을 끌었다.

보성차의 가장 큰 특징은 기계화 설비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들 수 있다.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지는 대한다업(061-852-2593)과 동양다원(061-852-2255), 봇재다원(061-853-1117) 등 대형 차밭은 자동화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 체제 구축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차를 대량생산·보급하고 있다. 최고급차가 6~7만원 선이고 상품(上品)은 4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차문화 교육현장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다 교육

중국차문화협회 짱유화 회장, 국제명차품평심사위원회 정인오 심사위원, 한서대학교 한방병원 도원석 원장….

차인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진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교수라는 것이다. '수십 년 간 한국 차문화를 연구해온 분만 교수로 모신다'는 학교측의 자랑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명교수진과 알찬 교과목
현장실습 통한 전문인 양성

지난 2002년 문을 연 석사과정의 차학전공은 학과의 이름이 말해주듯 '차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터전이다. 사실 그동안 차의 재배와 제다에 관한 연구는 일선 차 생산자들의 경험에 의지해 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차학전공에서는 차문화에 있어 예절이나 행다보다는 차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제다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국내 및 세계의 차문화 발전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 차인 양성'을 위해서다.

교과목 역시 차나무의 품종과 효능에 관해 배우는 '차식물학 연구'를 비롯해 차에 대한 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연구와 차별화된 차상품 개발을 위한 '차의 과학적 연구', 제다기술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한 '제다 방법론', 차육종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보다 나은 재배법을 개발하는 '차재배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덕분에 몇십 년 씩 제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매년 10여 명 안팎의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현장실습을 제일 중요시 한다. 한달에 한 번 서울 안암동에 있는 품평실습실에서 국제 규격의 품평기를 기준으로 한 품다교육을 받기도 하고, 차 채취가 시작되는 4월부터 7월까지는 주말마다 지리산 일대의 제다업체에서 직접 차를 따고 덖는 실습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이 곳은 방학이 없기로도 유명하다. 방학이면 주말마다 합숙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국내 차문화 유적지 답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차학전공이 문을 연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국내 최초로 '세계명차 차엽 전시관'을 개관하고 학부과정의 디지털 대학을 개설하는 등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인터뷰

정인오 주임교수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차인 양성

"차문화의 주인공은 바로 '차'입니다."

한서대 차학전공 정인오 주임교수는 "차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에 대한 자연과학적이고 본질적인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한서대 차학전공에서는 차문화와 차산업계에 꼭 필요한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저한 기본교육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차인 양성을 위해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는 학부과정의 디지털 대학을 열어 차에 관한 기초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일반인을 위한 교양강좌와 국제적인 차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문화 알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한다.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수행방법과 수행단계

부산 법기불교대학 제3기 수강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의 참뜻은 중생 스스로의 수행으로써 마음의 속성을 바꾸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참선수행은 중생심인 무기와 번뇌를 부처의 마음인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노력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의 입문부터 무여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수행단계와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법기선원 불교대학 제3기 과정이 아래와 같이 시작됩니다.

[부산법기불교대학 강의 일정]

차례	강 의 내 용
1주	불교 바로보기 / 중생의 마음 (무기와 번뇌, 가아와 진아)
2주	수행방법 (관법과 염법) / 수행에 관한 법담
3주	기초교리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삼법인) / 수행 점검
4주	기초교리 (오온, 12처 18계, 계율, 대승과 소승) / 반별 법담
5주	수행자 호흡 (지식 호흡, 반지식 호흡) / 선배수행자의 수행경험담
6주	좌선과 행선 / 삼매와 삼매관성, 수행과 업장소멸
7주	수행자의 건강관리 / 상기의 극복 (멜로디)
8주	수행의 단계 / 호흡 점검
9주	돈오, 유여·무여열반, 여래심 (무념과 반야) / 이근관, 안근관
10주	기복불교, 북방불교·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도반의 수행담
11주	잘못된 불교상식 바로알기
12주	선지식 법문

개강
주간반 : 2월 10일(화요일)
야간반 : 2월 11일(수요일)

수업일시
*매주 1회 수업
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방문접수
목요일 : 오후 2시-9시, 토요일 : 오후 6시-9시

연락처
법기선원 : 051-516-9104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서울법기불교대학 강의일정은 02-854-1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UBKI BUDDHIST TEMPLE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2004년 3월 11일 개강

제7기 기초반 제5기 경전반

● 기초반 : 매주 화·목 오후 2시 ~ 4시 ●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주요 특강교수진

지관 큰스님 – 前 해인사 주지. 동국대 총장 現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세 민 스 님 – 해인사 주지, 지장선원 회주
법 산 스 님 – 동국대 정각원장
현 각 스 님 – 동국대 선학과 교수
태 원 스 님 – 중앙승가대 교수
권기종교수 – 동국대 前사회교육원장
김용표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현 호 스 님 – 안양불교학장, 지장선원 주지
최영준거사 – 불교방송 진행자, 개그맨, 가수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안양불교대학
031)444-5935~6 홈페이지 – http://지장선원.kr
카 페 – http://cafe.daum.net / jijangzencenter